



# 금풀의 광부들이 안겨사는 영원한 태양의 품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낸간인민 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만리선구자대회장으로 활한 정승례 프를 선함으로 많은 금풀의 창한 광부들의 소식은 산시에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져 만리마시대에 거대한 혁력을 부어주고 있다.

금풀의 광부들이 뛰어울 업마다 하였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 시대를 적응시키는 영동적 사변을 안아왔는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격동적인 사변에는 반드시 그를 추동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맷은 정을 퍼풀 치렀던 격동하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숭고한 의리를 지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바의 맏이들인 영동적 도로에 핵심대로, 우리 당의 자랑 금풀의 광부들.

우리는 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모두의 가슴을 자나내나 불태우며 네대를 이어 다방적이며 편발적인 승진포상을 울리며 한 불글의 정신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히 결의려 한다.

※※※

김혁의 녀성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뛰어난 금풀의 4·5경 영웅소대,

광부용사리안전모를 쓰시고 광부들이 라는 인차에 올라 마장으로 들어가시면 어버이장군님의 불멸할 모습 눈물겹게 떠오르게 하는 금풀,

금풀 광산 4·5경이 위대한 장군님과 협연의 정을 뗤게 된 날은 지금으로부터 4·2년전 7월 1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땅속에 보물이 무진 장하다고 그 이름 지어 주신 《금풀》.

먼 옛날 말만 장수가 넘어서기로 꾸꾸미에 하늘에 달을 가득 헤리니 꿈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전설의 명 마천령의 꼴모를 끌인에 자리 잡은 우리 나라 굽지의 대유역 금속 광물 생산기지,

지세험한 산밭을 넘으시며 금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하마장으로 들어가시려고 4·5경 입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현지의 일꾼들은 무작정 그이의 일을 막아나섰다.

《안된다니. 위험합니다.》

《절대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장이나 도에서 떠나오는 일꾼들도 마장에 만은 들어 가지 못하게 막아왔는데 광차 위대한 장군님을 마장에 모시다니...

4·5경 마장으로 말하면 수십리 지상길이에 있음뿐이니 그두렵에는 생간만 생산이라고 냐다 내미느라 잘 정비하지 않아 경안이 잘 절문되지 못하고 저어 어떤때서는 석수까지 출을 흐르고 있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것으로 하여 애원에 찬 눈빛, 눈물어린 어조였다.

이런 일꾼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까지 왔다가 악착같이 둘리는 광부들을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는가하고 하시며 어서 경으로 들어가자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에 넘친 용성이 어려지도 저려지도 못하고

비자이번 일꾼들의 폐부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개인에 들어 가지 않음비에야 우리 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오겠습니까.

우리의 귀중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뜻이면 아무리 멀고 힘한 뜻이라도 들어가보아야 합니다. 광부들을 찾아온 우리들이 막장에도 안들어가고 그냥 돌아가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해하겠습니까. 내 직정은 말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여 인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인차가 지급 막장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산시에 정안에 알려졌다.

《그분을 막장에 모시다니? ! 정신들이 없군.》

한 료광부는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었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인차, 점점 깊어지는 철속을 듣는다.

(이를 알았다면 미리 인차에 전등이라도 한일 말아놓았을걸.)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가도가도

풀이 없는 친한 친구들에 들어가는 일꾼들은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었다.

이런 불타는 열망으로 경인을 돌아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풀의 광부들이 쇠돌운데에 고생

하지 않도록 유통에서처럼 대형장기

리트랫트판매이수송선을 놓을 조치를

위해주시었다.

장기리밸트판매,

온들의 대기념적 창조물인 장기

리트랫트판매이가 어떤 위력을 파악하

고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으나 그걸 깊이 짚고 싶어서 광부들이 달려왔다.

물론이 티진듯 사방에서 환호

로 지침을 전하고 광부들이 달려왔다.

얼어질듯 달려와서 《만세!》한호

를 울리는 광부들, 인민군대처럼 거

수경례를 하는 것 제대편 광부들...

여기 가 어리라고... 그 힘한 걸질...

그냥 어깨를 들썩이는 광부들, 참으로 끔만 같은 현실이 아닌가.

마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대형한 조각으로 달려와서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지하마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광부들의 광부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광부들속에 앉는 사람은 없는가, 일은 힘들지 않은가.

사람과 정으로 광부들을 위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광부들의 두루로는 뜨거운 속보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기 안색을 흘리시았다.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은 광부들을

여기 가고자 하는 광부들이

나타나면서도 서둘러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이런 형한 마장

으로 모셔왔다고 운전공을 추상같이

볼게 했던 또 광부들 이전에 그의 손을 불집으며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양락하게 하소하는 바람에 운전공도 올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인차는 딱장을 떠나 침범한 간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어느새 위치를 차지하였는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신 인차가 서

서히 미끄러져가는 개들의 요소요소

마다 카바이드등을 켜는 광부들이

성벽같이 서서 어버이장군님을 바래

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겨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에서 그냥

드거운것이 격랑처 장군님께서는

걱정을 읊지 못하시였다.

생산을 보기 전에 사람들을 보시며 한없는 온정을 베풀어주신 사랑의 길, 그 사랑의 위력을으로 수천수만의 심장을 격동시켜 기적을 창조하게 한 금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인공해빛을 조일수 있었으며 학습

실, 영사실 등 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광부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스스로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금풀의 광부들 한사람한사람을 금풀을 이루는 무진장한 광석보다 더 귀중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헌신을 아끼기로 했던 것이다.

금풀, 이는 평도자와 충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뜨거운 혈연의 정을 뱉고 위대한 단결의 역사와 수놓아왔는가를 전하는 역사의 증진자이다.

혁명은 평생을 푸사하고 정신이고 두

평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금풀의 광부들은 광부들의 폐지를 험연의 정을 뱉고

계되었던 것이다.

금풀, 이는 평도자와 충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뜨거운 혈연의 정을 뱉고 위대한 단결의 역사와 수놓아왔는가를

가을 전하는 역사의 증진자이다.

혁명은 평생을 푸사하고 정신이고 두

평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들 모신 일민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다.

명도자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은 숲과의 경쟁적 단체이다.

금풀이 걸어온 길



# 모두다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한 재령벌의 애국농민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 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일을 잘하여 학습증진으로 당을 밟고 조국에 혼신하는 사람에게 당의 충직한 농업현서사이고 내 나라의 친환경농민입니다.』

우리 당은 또 한 사람의 열정적인 실천자, 애국자를 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웠다.

그는 제4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 동무

### 이삭 밭에 피땀을 묻으라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카을 이었다. 제4군의 활동촌길로 배낭을 등에 전 세대 군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군사부무 일 품으로 하는 윤룡석 동무는 새운은 진루좌장을 정하였다.

인민군에서 철련된 윤룡석 동무의 일총에는 철련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

을 하든 척척 해제끼는 그에게

이다. 지난 11년간 윤룡석 동무는 농장으로 제일 뛰어난 행운을 올라온 사람의 형체가 보이었다. 향기로운 향기를 험난한 주민으로, 하나와 같은 실농꾼들로 칭송된다.

금하고 사람이 있는 풋으로 다가가면 윤룡석 동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레강위원장이 있던 것이다. 인기척을 느낀 레강위원장이 그만에야 히리를 썼다.

우리는 윤룡석 동무의 모습에

오늘날 우리 당에서 바라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체현자, 친환경농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게 된다.

『농장원들이 동무를 아간원의 능수라고 한다는데 헛말이 아니었구만.』

윤룡석 동무는 논쪽에 나란히 앉은 레강위원장은 무언한 베푸른 그의 심장에 흐르는 유통석동무는 이윽도록 바보다. 일을 열었다.

『이신착적도 중요하지만 혼자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소. 동무야 혁명적 군인정신이 물에 푸른 사람�이 아니요. 농장원들이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흐르는 유통석동무를 말아주어야 하오.』

다음날 아침 윤룡석동무는 작업 조직을 하기 위해 앞에 만원들에게 이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지금도 나파가 고난을 겪던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드시던 한봉기의 죽이 자꾸만 가슴을 고통에 일으킨다. 우리 장군님은 죽으로 해가 편한 일과 함께 일하던 그들이 흘렸을 때 유통석동무는 새운은 진루좌장을 정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 작업반원들의 눈이 축복에 차운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제4군에서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윤룡석 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한봉기에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나

#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장애를 조성한 역사적교훈을 잊지 말고 조국통일3대원칙의 가치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만고절세의 위인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신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이 밝혀준 불변의 미정표를 따라 세계와 네대를 이어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진정해온 45년。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사는 북과 남이 조국통일3대원칙의 가치따라 나갈 때 화해와 단합, 반영과 부흥의 시대가 절차지게 되어 반대로 외세 추종과 동족대결, 전쟁소동에 매달린

## 외세의 존은 가로막는 자주통일 기본장애물

복잡한 북남관계와 광구한 조국 통일운동은 외세의 존과 우종에 접착 하며 온 겨레가 그토록 간망하는 자주통일의 대업을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다는 역사적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본원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통일문제를 외세에 떨어뜨려 해결하려는 것은 사대미국의 국치이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총 한방 쏘이 분석이 없는 외세, 우리 민족의 의사와 지향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어놓은 원한의 분석으로 분열의 걸음을 강요한 외세에게 빌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북남관계가 물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것은 계적으로 남조선의 력대 침략파들이 외세에 대한 무조선적인 긍종과 복종, 공조에 만ateful며 막았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를 끌어싼 정세가 빠 잡하고 혼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경지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끊임없이 품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추종하면서 반역을 일삼을것이 아니라 통족과 손을 잡고 통일의 통산자로 나설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생활하는 노력은 더 기울여졌다.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회망과 바람은 안마근 7, 4·15통일성명의 발표로 이 정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조선당국도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며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겠다고 학약하였다.

민족내부에서 다짐한 그 약언은 대체로 기회를 놓아버렸다.

외세에게는 온 민족이 조국통일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보다 더 절박한 때에는 없다.

북남관계의 평화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오늘의 현실은 민족자주당이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이라는 역사적교훈을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고 있다.

민족자주당은 민족의 생명선이자 파란민장의 우리 민족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박근혜여도가 민족의 존엄한 실관을 밟은것은 만고역적에게 차에진 용당한 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통로 국제세력을 박근혜의 미국적밀로에서 교통을 끊을 대신 『한미한반도강화강화』를 더욱 팽창적으로 펼쳐내며 미국의 옷자락에 펼쳐왔다.

제3차 세계大战에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체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미국의 의존하여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족자주당의 세시대가 이미 청색었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통치자들은 민족자주

의 원칙을 깨버리고 미국과 일본의

다면 겨레의 운명이 풍락당하고 통일의 전도가 임답해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뜻해 새겨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불평과 대결, 친전쟁의 참화에 빠져드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이야말로 통일운동의 학사교훈을 심각히 들이켜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안고 자주통일의 걸로 예전에 이어 단합, 반영과 부흥의 시대가 절차지게 되어 반대로 외세 추종과 동족대결, 전쟁소동에 매달린

미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어폐식은 것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참에 한 때일수록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루정은 에 국가과 미국, 민족자주정신과 사대굴 통사상간의 실각한 루정이다.

남조선당국은 청미사대 군성을 버리고 굽숙처럼 대미글총장정책과 단호히 경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두세기에 걸쳐 미일 두 세국주의의 침식지지배를 막아야며 남조선사회전안에 제작된 사대과 굴종, 외세의 이로운 자주통일과 평화를 심각히 드러낸다.

민심이 추운 정의의 초봄에 맞서 미국기탈을 내흔들며 풍기는 바위를 떠나온 미조국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외세에 추종하는 반역무리들을 단호히 끌어내리며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할것이다.

민족의 존은 미조국주의 가치를 높이 놓아나야 한다.

민심이 추운 정의의 초봄에 맞서 미국기탈을 내흔들며 풍기는 바위를 떠나온 미조국주의 가치를 높이 놓아나야 한다.

민족의 존은 미조국주의 가치를 높이 놓아나야 한다.

# 평양선언의 가치밀에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세계 300여개 정당들 평양선언에 서명, 사회주의위업 승리를 위한 류쟁 활발

역사적인 평양선언『사회주의의 위업을 흥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25년이 되었다.

주제 81(199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파에 온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노동당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지향하는 정당 당수들과 대표들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흥호하고 전진시켜나갈 것을 고려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이 거대한 사건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증해 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국가의 자파들과 사회주의의 대표들의 행동으로 쓰러져나온 노동당과 노동당에서 사회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은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였다.

공산당, 노동당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그 리념을 포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엄혹한 시기에 경향에서 유품과 전시에 대한 세운 철학과 철학으로 사회주의의 재생과 전진의 위대한 포장을 선보였던 청진당, 단체들과 인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사회주의 운동에 활력을 부여 주었다.

선언은 발표하자마자 캐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온 행성을 훑쳤었다.

내 팔로 동지 농민당과 내 팔 광

선당은 당합을 실현하고 당군과

대수로운 협력을 재해 주었다.

선언은 발표자마다 3·8 당통

대회를 통하여 당명칭을 동등당

으로 개칭하였다.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지구상 이르는 뜻마다에서 혁명적당들이 제전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재생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파리에 들어와 나이제리아부

통신망에 빠져나온

정당들이

제전과 동유럽나라들에

제전과 동유럽나라들에